



#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와 전망

글 \_ 윤필홍 INKE 워싱턴DC지부 의장 (InteliSystems 대표)

www.intelisystems.com / tel : +1-703-763-4208 / E-mail : pyoon@intelisystems.com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리먼 브러더스사의 파산과 메릴린치사의 매각 소식, 미국 최대 보험사 AIG 파산까지 가히 패닉이라고 불리울만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당장 미 정부의 구제금융 투입 등 급한 불을 끄는 조치는 나오고 있지만, 연일 터지는 미국발 경제쇼크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의 특성상 직간접적인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미국금융시장의 현재와 전망을 살펴본다.

**○ 지난** 9월 15일은 미국내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사가 역사상 가장 큰 파산신고(filing for the bankruptcy)를 통해 어렵지않게 미국주식시장을 침몰시킨 날이었다. 이날 다우존스는 2001년 9·11사건이후 하루 동안에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하면서 504 포인트를 손실한 10,917.51로 막을 내렸다. 뿐만아니라 이번 리먼 브러더스사의 파산신청을 통해서 리먼의 채권자들 및 연관 Financial Industry의 회사들에게 미칠 수 있는 도미노현상(Domino Effect)의 위험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리먼사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은행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역시 재정위기에 빠진 메릴린치(Merrill Lynch)사를 500억 달러-약 55조 원의 금액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함으로 당일 그 주가가 16%나 하락했다. 서브프라임 마켓의 붕괴와 함께 모기지과 연결된 유가증권에 투자한 회사들은 그동안 초긴장상태로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지만, 대공황 때도 버텨내며 158년동안 지탱해왔던 리먼사의 파산과 메릴린치의 파인은 미국경제가 침체에 들어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G

Vk

한 주 전인 9월 7일에는 미연방정부에서 서브프라임 위기에 빠진 미국경제를 건져내기 위해 쓰러져가는 준 정부 기업이며 모기지 산업의 양대산맥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을 인수하는 극적인 구조작업이 발표되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주택금융회사들이 대출한 주택담보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이를 보증한 뒤 채권시장에 되파는 주택금융기관으로, 미정부는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고 해외투자기업들에게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할 수 없었던 절박한 수를 던지게 됐다. 거대한 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국회는 정부보증기업체(GSE(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를 구조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채 안되어 법안을 통해 얻게된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연방정부는 납세자들의 달러를 통해 두 회사들의 지급불능을 막도록 각 회사당 10억 달러까지 투입할 것을 공약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양사의 지난해 손실합계는 총 149억 달러로 드러났으며 두 회사의 모기지 부채에 대한 보증금액만도 12조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덕분에 필자가 가지고 있었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주가도 지난해 동안 90%이상 폭락해 1달러도 채 되지 않은 금액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더 우울한 사실은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와 투자상품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주식은 우량주로서는 필수로 여길 만큼 각광을 받고 있었고 또 그 이유때문에 미국전역에 많은 투자상품과 은퇴연금의 한 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래서 두 거대 모기지 회사의 붕괴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끼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그 구조작업이 실행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않아서 미국의 금융 시장이 다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라는 역사상 최고규모의 파산을 통해 또 하나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주택시장의 건강도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동안 곤두박질해왔던 주택가격과 용자시장의 동결로 지속되는 위기를 피하

지 못해왔던 주택시장은 아직도 미국 주택소유자들 중 9%가 모기지 지불이 밀려있거나 담보물을 찾을 권리 상실을 의미하는 유질처분(foreclosure) 과정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내 실직율이 5년만에 최고기록인 6.1%를 육박한 것으로 볼때 더 많은 가정들이 현재 소유하고있는 주택의 유질처분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분석가들은 우려하고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은 내년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높은 유가와 생필품가격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지 미국뿐만이 아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sia Development Bank은 아시아 경제 역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을것임을 예고했다. 유가역시 다시 오르게 될 것이라며 배럴당 적어도 100달러 이상으로 거래될 것을 언급하며 미국금융시장의 고전이 계속적으로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것임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금융과 주택시장의 위기로 가라앉고 있는 미국경제는 언제쯤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장 앨런 그린스펀도 이번 금융위기를 100년에 한 번 있을만한 사건으로 불렀으며 미국이 불황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도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미국경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바닥에 머무는 안정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금융시장과 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뚜렷한 확답을 기대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다. 연일 분석가들을 경악케하는 금융시장의 뉴스들과 드러나지 않은 채 가려져있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하락, 높아만가는 실직률,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가와 이미 가파르게 오른 생활필수품의 가격, 그리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져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경제의 부활은 역시 더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U